

기상정보 꼭 챙긴 후 겨울산행 하세요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서

경사로·환경·날씨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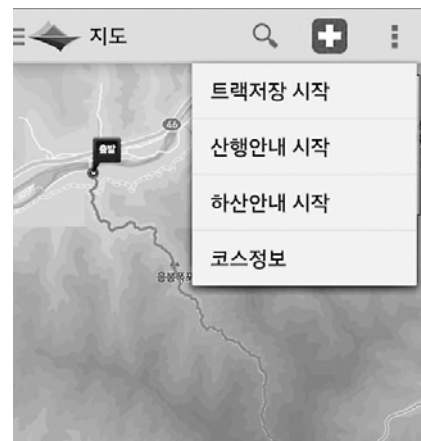
일몰 2시간 전에 하산해야

겨울철을 맞아 눈 덮인 산을 찾아 나서는 탐방객이 부쩍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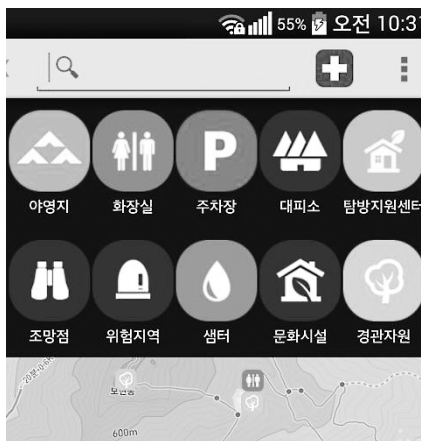
겨울 산행은 그러나 추위로 인한 체력 소모가 심하고 길이 미끄러워 충분한 계획 없이 떠나거나 산행 중 방심하면 낙상, 돌연사, 탈진 등 위험과 안전사고도 맞닥뜨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안전한 겨울 산행을 위해선 자신의 체력에 알맞은 탐방로를 선택하고 기상 변화에 대비한 체온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 2012~2014년 겨울철(12~2월) 국립공원 내 사망사고 14건을 조사한 결과, 심장 돌연사(9건)가 64%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중 처음으로 동사(凍死)가 2건 발생했다. 전체 사고(754건) 중에서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부상(골절·상처 등) 사고가 511건(68%)으로 가장 많았고 탈진·경련 사고(170건·22%)가 뒤



탐방로 경사로·기상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립공원 산행정보앱'.



안전 등반 체크리스트

- ☑ 혼자보다는 2명 이상 동행
- ☑ 안전센터에서 휴식 취하기
- ☑ 초콜릿 등 비상식량 챙기기
- ☑ 체온 유지용 모자·장갑 등 방한 의류 챙기기(자외선 보호안경, 아이젠도)
- ☑ 일몰 2시간 전에 하산

를 이었다.

이처럼 겨울 산행에서 돌연사, 동사, 부상 등 사고를 예방하려면 산행 준비 단계부터 자신의 체력을 고려해 적절한 탐방코스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산을 오르며 흘린 땀이 식어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지 않도록 여벌의 방한 의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겨울 탐방은 다른 계절에 비해 일출 시간이 매우 짧고 기온 차도 심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선 일몰 2시간 전에 하산을 마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혼자서 등반하기보다는 3명 이상이

함께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는 게 좋다.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탐방 중간에 안전센터를 활용해 적절히 휴식해야 한다.

안전사고는 주로 하산할 때 발생한다. 하산을 서두르다가 균형을 잃어 넘어지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미끄러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장시간 산행을 준비한다면 초콜릿과 같은 열량이 높은 간식이나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한다. 체온 유지를 위한 모자와 장갑,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보호안경, 눈길을 걷기 위한 아이젠도 챙겨야 한다.

공단은 국립공원 산행정보앱과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탐방로의 경사도 등 환경과 기상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예보(산행지수)'를 제공한다. 산행정보앱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구글 또는 애플 스토어에서 '국립공원'으로 검색하면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겨울 산행을 준비하는 탐방객이라면 자신의 체력에 맞게 산행 코스를 정하고 국립공원을 찾을 경우 공원 사무소에 산행 정보를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빛원전 6호기 내달까지 정기 점검

4호기 18일째 재가동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영광 한빛원전 6호기가 지난 5일 오전 10시를 기해 발전을 중단하고 제 10차 계획예방정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빛 6호기는 정비기간 동안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법정 정기검사와 연료교환 작업 등을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22일경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제15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한빛 4호기도 4개월여간의 정비를 마치고 이달 18일경 원안위의 승인을 거

쳐 재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빛 4호기의 경우 증기발전기 관막음(결합이 발생한 전열관을 막는 조직) 물이 기존 허용치인 8%를 넘어선 8.4%까지 치솟았지만, 원안위의 '원전 운영 변경 허가(한빛 3·4호기 증기발전기 관막음 허용률 상향 8→16%)'에 따라 재가동이 가능해졌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한빛 4호기는 운영 변경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 후 적절한 정비기간이 이뤄져 재가동에 들어가게 됐으며, 6호기의 경우 애초 계획된 필수적인 정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멸종위기 해마 생태 비밀, 완도서 확인

거머리말 군락지 1km당 588마리 서식...보호구역 지정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해마'의 생태 비밀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완도 소안도에서 풀렸다.

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완도 소안도에서 발견된 해마의 생태를 최근 6개월 조사한 결과 활동시간과 산란주기 등 생활상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해마는 주간보다 야간에 10배가량 출현 빈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에는 포식자를 피해 거머리말(바닷속 식물)에 붙어 휴식하고 야간에는 주요 먹이인 동물플랑크톤을 따라 수면 위로 올라와 사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란 시기는 6~7월로, 주 서식지는 거머리말 군락지로 파악됐다. 개체밀도는 1km당 588개체로 매우 높았다.

해마는 연안성 정착 어류로, 독특한 생활 양식과 좁은 행동반경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 '적색' 목록에 올랐다. 국내에는 해마류 7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독특한 생김새로 인해 관광용으로 인기가 많다. 보신용 약재로 불법거래돼 국제거래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크기(보통 8cm)가 작아 유속이 빠른 바다에선 살지



거머리말에 붙은 해마

못한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자신의 보육낭에 품고 부화시켜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키우는 등 특이한 생태를 보인다.

완도 소안도의 거머리말 군락지는 유영능력이 약한 해마에게 최적의 서식지다. 그러나 최근 연안개발로 인해 면적이 2009년 2.51km에서 2013년 1.89km로 급감해 해마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해마의 서식지인 거머리말 군락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마의 산란기인 6~7월에는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보호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환경운동연합, 학생들과

황룡강 쓰레기 수거 활동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9일 황룡강 송정교 일원에서 중·고교생, 대학생 등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펼쳤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50포대(50kg 들이)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하천 정화활동 후에는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위 기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올 여름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하천은 불법 투기 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선 시민의 인식 개선과 함께 하천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국립공원관리공단 "쓰지 않은 시설 예약금 찾아가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10일부터 국립공원 시설이용 예약제 미환불금에 대한 환급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국립공원 내 대피소(산장)와 야영장을 예약하고 취소 또는 미사용한 고객 중 환불을 위한 정보가 맞지 않아 발생한 금액을 되돌려주려는 조치다.

환급 대상 건수와 금액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2671건으로, 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지난해 2월 이후로는 환불 계좌가 일치하지 않으면 결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예약 체계를 바꿔 미환불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불정보 불일치 내용은 계좌번호 오류, 해약계좌, 실명 미확인, 주민등록번호 오류,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미환불금 조회나 확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할 수 있다. 간단한 설명문 중(휴대폰 인증)을 받은 다음 환불 가능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환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금 소멸시효는 사용예정일로 5년 이내다.

공단 관계자는 "환불금 소멸시효는 사용 예정일로 5년 이내이므로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 후 3개월 이후부터는 차적으로 소멸된다"면서 "환불에 관한 문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고객센터로 전화(1670-9201)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농부 철학자' 윤구병, 11일 광주서 '생태공동체' 강연

농부 철학자로 잘 알려진 윤구병씨의 강연이 광주서 열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빛고을 아이쿱 생활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아이쿱 생활 빛고을센터(북구 송해로 79)에서 윤구병씨의 강연을 연다고 8일 밝혔다. 강연 주제는 생태교육과 공동체이며 참가비는 없다. 참가

접수는 온라인 사이트(http://goo.gl/Fi12Rw)에 들어가 신청하거나 이메일(antihakbul@gmail.com)로 할 수 있다. 강사로 나서는 윤구병씨는 보리출판사 대표이자 변산공동체(송촌공동체) 설립자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문의 070-8234-1319.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예식장 건물

토지 2,211㎡(668평) 건물 4,218㎡(1276평)

- 파격적인 임대조건 (보증금 및 차임)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문의 010-7570-7525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용봉동 굿모닝타운 2층상가 매매

- 전용289㎡ 현재 카페 인테리어+체육시설적합 공실포함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